

성 명 서

- 성고문 전상은 폐하는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

우리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접하여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 전대미문의 추악한 범죄가 단순히 공권력의 위신실추에 국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우에만은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공정한 수사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배신당하였고, 오히려 검찰 발표와 덧붙여 나온 정체도 아리송한 공안당국(신문사 확인 결과 안기부장이라고 함)의 미리 준비한듯한 민중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악의에 찬 모략선전의 공세를 받았다.

도대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전대미문의 추악한 성고문을 저지른 수사당국이 오히려 운동권 학생들이 투쟁전술의 일환으로 성을 공유하고 성을 도구화한다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남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 한사람도 이러한 검찰의 발표를 믿지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검찰, 안기부등의 상투적이고 악랄한 민중민주화 운동의 매도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여대생 추행사건, 고숙중 여인사건, 김근조씨 치사사건, 김근태 민청연의장, 서노연 활동가들 고문 등에서 드러난 수사당국의 폭력적 고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을 도구로 하여 허위남조한 권양을 왜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는가? 문귀동이 권양을 서너차례 가슴을 주먹질했을뿐이라면 그 정도의 가혹행위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까지를 문책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의 인권의식이 성장했는가 의아스럽고 가소로울 뿐이다. 우리는 변호인단의 고발내용을 믿고 검찰발표를 전면 거부하며,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더 중대한 일은 없다고 본다. 개헌을 백번 해보았자 이런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가는 풍토에서는 결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천경찰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8시 성고문 보고대회에 참석한 180여명의 종교계, 여성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 성고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보의 후퇴도 없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 존엄성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남녀 민주시민들이여,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라 !

- 우리의 요구 -

- 당국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인정하라 !
- 성고문을 자행한 문귀동과 부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등 관련자를 전원 파면, 구속, 처단하라 !
- 강제추행, 고문 폭력수사 책임지고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물러가라 !
- 성고문 진상은 폐하는 검찰총장 물러가라 !
- 사건을 왜곡 조작한 소위 "공안분석" 책임자 처벌하라 !
- 이번 사건을 무책임하게 편향 보도하는 언론은 과징하라 !
- 이 사건을 항의하다 구속된 여성의 전화 원장 김희선씨, 노동자 배영미씨를 즉각 석방하라 !

1986 . 7 . 18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 대책위원회

여성 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선생)
천주교 수녀회 장상연합회 (회장 김순자수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목사)
정토구현전국승가회 (회장 청 화 스님)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의장 제정구 선생)

7.18 진상보고대회 참석자 180명 일동